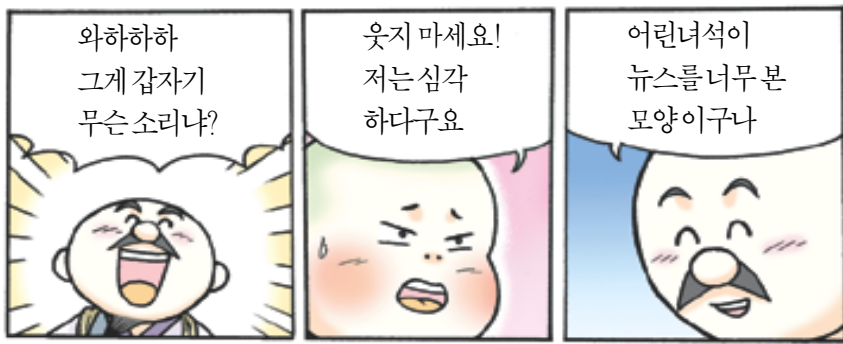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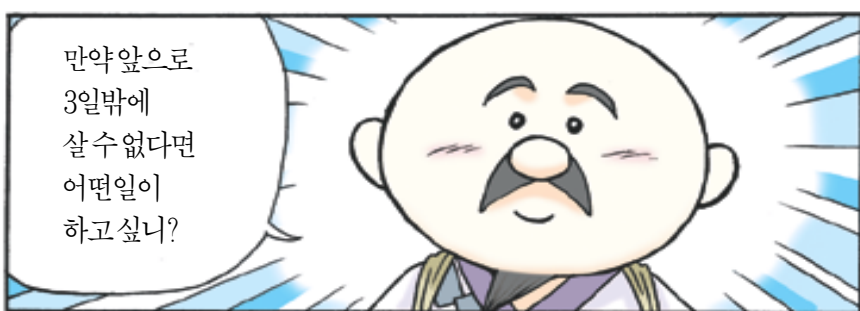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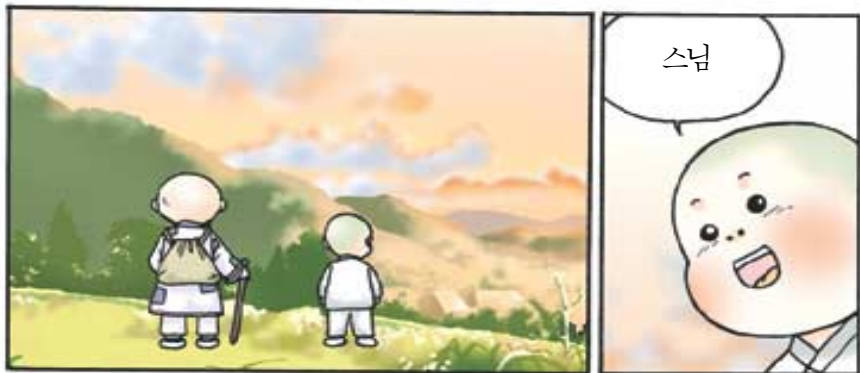


#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14화)

## “꿈은 현실 속에 있나니...”

〈출전: 맛지마 니까야, 3, p-233〉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옥



## 이렇게 들었다

## 두 가지 전쟁 소식

### 현실 바로 보기

뉴스와 신문 기사의 대부분을 전쟁 소식으로 채운 지 꽤 여러 날이 지나가고 있다. 곧 끝내겠다며 자신만만하던 미국이 장기전을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선재가 접하는 전쟁 소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이다. 국내 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전하는 소식이 하나, 그리고 외국 방송사가 전하는 소식이 나머지 하나.

그런데 전쟁 소식을 전하는 외국 방송사의 역할이 지난 전쟁과는 많이 다르다. 이라크에서 CNN이 쫓겨나면서 아랍의 알 자지라 방송이 큰 힘을 얻고 있다. 아랍계 아니라 지난 달 선재가 처음 개전 소식을 접하면 CNN의 화면은 전자게임 자재였고, 그걸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대한민국 방송은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앉아 있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하지만 알 자지라 방송의 역할이 커지자 소총의 공격에 아파치 헬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위성이 제어하는 '스마트'한 미사일이 민간인 지역을 공격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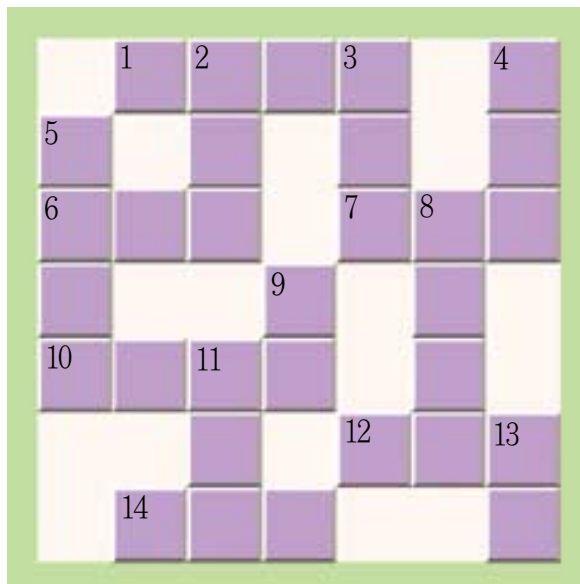
<성유식론>에서는 아뢰야식이 전변(轉變)과 전의(轉依)를 한다고 설명한다.

아뢰야식에서 7식, 6식으로 이어지며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전변이니 윤회를 하는 모습일 것이고, 그런 망식들을 바른 지혜로 바꾸는 일이 전의이니 깨달음을 향해 가는 모습일 터이다. 똑같은 전쟁을 전하는 말들 중에 한쪽은 우리를 현혹시키고 다른 한 쪽은 실상을 보게 만든다면 선재는 당연히 전쟁을 포장하지 않는 편을 들겠다. 있는 현실을 바로 보는 일, 그것이 제대로 사는 첫걸음이니 말이다.

“대원경지(大圓鏡智)로 변화한다는 것은 우주 전체가 완전한 거울처럼 변화한다는 의미이다. 그 거울에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비추어지는 것처럼 대원경지는 모든 것을 항상 주객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 이것은 자기와 우주의 진실과 하나가 된 지혜이며, 여기에서 다른 모든 지혜가 생겨난다.”

<성유식론>이 전하는 대원경지의 모습이다. 알 자지라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에 대한 지혜를 얻는다.

■ 최원섭(성철선사상영연구원 원학실)



## 교리퍼즐

### 가로

1. 아제 아제 0000 바리승아제 모제 사바하. 6. 정토신앙을 바탕으로 한 종교결사로서 남송 초기에 자조자원(?-1166)이 시작. 백련재(白蓮菜)라고도 부름. 7.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최초의 설법을 하신 것을 일컫음. 10. 조용한 곳에서 수행하면 얻을 수 있는 열가지 덕. 남녀의 경지가 없으니 애욕심이 없다. 잡된 말의 연이 없으니 거짓말의 허물이 없다 등(闍居十德). 12. 원래명칭은 팔리어의 담마파다(Dhammapada)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 불교의 윤리적 인 교의를 시의 형태로 나타낸 경구를 모아놓은 경전. 14. 수계할 때 계를 주는 대덕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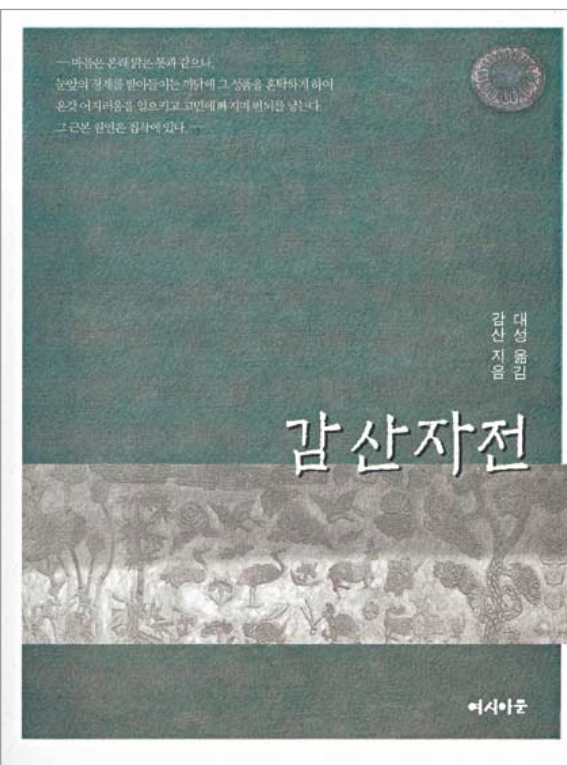
< 415호 「교리퍼즐」 정답 >



### 세로

2. 타베트를 중심으로 흥성한 불교. 3. 추수한 것을 제사의 비용으로 하는 밭(祭田). 4. 부처님이 신통을 부여 중생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함. 5. 부처님 입멸 후 제 1결집시에 모인 수행승들을 지칭. 우리나라에서는 거조암의 이 전각이 유명함. 8. 극락세계를 설계한 비구. 극락세계에 나타난 장엄(莊嚴)이 48가지여서 이를 0000 48대원이라고 함. 9. 선을 쌓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선행의 결과로서 보답받는 과보를 말함. 11. 인간을 구성하는 18개의 구성요소. 육근(눈·귀·코·혀·몸·의식)과 육경(색·소리·향·맛·촉·법), 육식(눈·귀·코·혀·몸·생각)을 말함. 13. 신라의 수도.

## 감산대사 수행일대기 한국 초역



신국판 변형 248쪽 값 8,000원

### 마땅히 가야 할

#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옛어른의 공부 길...

### 하지만 가지 못하고 있는

- 이자전(自傳)의 원제는 『감산노인자서연보실록 慈山老人自序年譜實錄』으로, 감산스님이 자신의 평생사(平生事)를 기술한 일종의 자서전이지만, 문학적 전기(傳記)라기보다는 년(年) 단위로 주요사건을 기록한 개인적인 행적의 기록에 가깝다. 때문에 매우 간략하게, 주로 저자 자신의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없는 대목이 많다. 그러나 중요한 시기의 이야기들은 주변 인물들과의 구체적인 대화나 사건 전개를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당시의 정황을 생동감 있게 전해 주고 있다. 특히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어 가는 이야기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

사물을 소유하는 사람은 도(道)를 말할 수 없다. 대저 만물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사람이다.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사물을 소유하는 자는 반드시 사물을 추구한다. 사물을 추구하는 자는 사람을 잊기 쉽다. 사람이 없는데 누구와 더불어 도를 말할 것인가? 사물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저자인 감산(憨山, 1546-1623) 스님은 운서 주공, 자백 진가, 우익 지옥과 더불어 명대의 4대 고승으로 일컬어진다. 12세에 출가하여 19세에 구족계를 받았다. 1581년에 오대산에서 무차회 無差會를 열어 법을 설하여 5백여 명의 대종이 모였다. 1597년에는 조계曹溪에 머물면서 선법을 부흥시켰다. 1616년에는 여산蘆山 오유봉에 법운선사法雲禪師를 건립했고, 1622년에 조계로 돌아와 다음 해에 입적했다.

유훈이 대성(大晟) 스님은 1989년 순천 송광사로 출가했다. 『참선요지』와 『방편개시』(여시아론)를 우리말로 옮겼으며 최근에는 라마나 마하르쉬 관련서적들을 ‘아루나찰라 총서’(탐구사라는 이름으로 번역하고 있다).